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법

불교는 지구적 화두인 생태학에 친화적 입자입니다. 그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요.

그럼 어떤 구체적 조치가 필요한가. '잊혀진 팔정도'를 삶의 길로 받아들여야 한다.

불교생태학과 에코포럼

저번 2월 12일이군요. 발제는 고영섭 교수가 하셨는데, 그분은 생태학의 위기와 그 불교적 해법을 붓다의 사성제의 틀에 빚대

다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물음은 아주 중차대합니다. 불교생태학만

오늘은 제 토론을 두고 오간 얘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고 교수께서는 생태

대처에 있지 않을까.' 저는 다이어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당신 뱃살이나 빼고 하는 소리요? 그러자 저 뒤편에서 어느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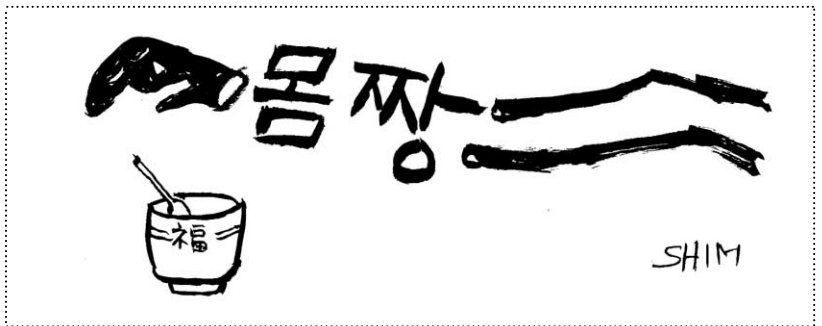
찬이 남지 않습니다. 밀려드는 손님이 급히 상을 치우는 소리가 가슴에 찌안히 뻗습니다.

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등줄기'로 먹지 않고, '목구멍'으로 먹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음식은 역시 등줄기로 먹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살기 위한, 요즘 말로 웰빙의 바탕입니다.

몸짱-위태로운 신화

음식은 목구멍 아닌 등줄기로 먹어야



저는 웃으며 일어나 배를 곁여 올랐습니다.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겠지요. 누르

입고 있던 바지는 한 2인치 이상은 핏줄 해서, 주먹이 드나들 정도입니다.

옛적 원시인들은 한번 식사에 물경 30킬로그램을 먹어치웠습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다. 과식이 습관화되면, 감각의 기능이 떨어지고, 사물에 대한 생생한 접촉이 둔화

꽃이 피는지, 바람이 부는지, 사람이 웃는지 우는지, 술이 무슨 맛인지 모르

퇴계와 더불어 영남의 좌우를 갈랐던 큰 선비 남명 조식(南冥 曹植, 1501~1571)은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와 열풍입니다. 이미 불어버린 몸을 줄이고, 그 몸을 새로 '만들기' 위해, 헬스클럽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와 열풍입니다. 이미 불어버린 몸을 줄이고, 그 몸을 새로 '만들기' 위해, 헬스클럽

주장사파라...

57 혜충 선사의 '허공'



조태호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about Buddhist teachings and the concept of '허공' (emptiness).

남양혜충(?-775): 당대선사. 절강성 소흥부 출생. 6조 혜능에게 배우고 법을 이음. 남양 백애산에서 40년 수행. 속종이 국사로 모셨다.

네티즌 교리문답

“대승과 소승의 차이는?”

대승, 대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로 구분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로 구분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승과 소승이 같은 것이지만,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로 구분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승과 소승이 같은 것이지만,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로 구분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승과 소승이 같은 것이지만,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로 구분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승과 소승이 같은 것이지만,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로 구분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승과 소승이 같은 것이지만,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로 구분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승과 소승이 같은 것이지만,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5.

상식퍼즐

- 1.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일 2. 전투나 군사상의 공무 중에 상체를 입은 군인 3. 평강공주와 바보 4.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 5.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나타내는 한자성어 6. 붓짐장수와 등짐장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 1. '삼일은 춥고 사흘은 따뜻하다'는 겨울철 날씨를 표현한 말 7. 신라시대의 고승으로 <화엄입승법계도>를 저술함 8. 불도를 방해하는 '온갖 번뇌나 악사(惡事)'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10. 예술에서 인상주의를 좇는 한 갈래 11. 습기가 많은 때에 나와 이끼를 같이 먹거나 풀 위에 올라가 어린잎 등을 먹고 살 '산와'라고도 불림 12. 깊은 깊이면 다초치마라는 한자성어 13. 동력을 쓰지 않고 손으로 움직임 14. 지난해의 마지막 말 15. 산성 밖에 임시로 구축한 소규모의 요새